



해당 시장이나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고 든다면 제2종 어항은 최근 연안어장 이용의 확대라든지 어촌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발이 미흡한 관제로 이용횟수가 적고, 이용 악순

말 현재 개발률은 총계획대비 평균 14.4%로, 제1·3종 어항의 36.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개발률 14.4%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을 이루고 있으니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전국의 제2종 어항 가

운데 가장 높은 개발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인천시로 '91년말 현재 80.8%를 기록하고 있으며, 반대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개발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전북으로 개발률이 불과 3%에 그치고 있다. <표1참조>

이밖에 부산이 35.2%, 경기 30.3%, 제주 26.3%, 충남 24.3% 순으로 20%선을 넘고 있으며, 제2종 어항수가 1백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의 개발률은 13.9%로 경남 15.3%, 경북 14.3% 다음으로 하위권을 이루고 있고, 강원은 10.9%이다.

제2종 어항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국비 50%에 지방비 50%로 자체조달해야 해야 하는 제2종 어항의 성격상 이에 따른 투자는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91년의 경우 어항부문 총예산이 575억 300만원이었는데 이 중 제2종어항의 예산은 겨

## 너무도 뒤진 開發現況

# 이용률도 低調 惡循環 거듭

환을 거듭함으로써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2종 어항의 이용도를 증대시키고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항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전국의 지정항수는 402개항으로 이 가운데 제1종 어항의 50개항, 제3종 어항이 33개항, 그리고 제2종 어항이 319개항이다.

그런데 이처럼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제2종 어항의 '91년

<표 1> 제2종어항개발현황 (단위: m, 백만원)

시·도	항수	총 계획		기시설('91년까지)			'92 계획		
		물량	금액(A)	물량	금액(B)	(B/A) %	물량	금액(C)	(B+C/A) %
합계	319	149,056.5	548,922	78,231.5	78,811	14.4	2,795	14,657	17.0
부산	7	4,367	9,430	2,953	3,316	35.2	102	503	40.5
인천	7	2,095.5	1,357	2,015.5	1,097	80.8	50	140	91.2
경기	33	9,044	24,113	5,818	7,305	30.3	145	894	34.0
강원	16	8,219	65,011	3,202	7,101	10.9	330	1,442	13.1
충남	30	14,264	28,525	7,991	7,012	24.6	430	1,740	30.7
전북	13	12,728	90,751	3,618	2,729	3.0	130	600	3.7
전남	102	44,809	119,515	19,263	16,627	13.9	613	3,100	16.5
경북	24	10,218	69,024	4,535	9,897	14.3	181	1,420	16.4
경남	78	37,143	121,634	24,792	18,590	15.3	424	2,242	17.1
제주	9	6,169	19,562	4,044	5,137	26.3	390	2,576	39.4

우 10%를 넘는 59억100만원이다. 그런데 '92년의 전체 어항부문 예산은 약 5.2% 늘어난 605억1,500만원이었지만 제2종 어항은 여전히 59억100만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한 끝에 결국 어항부문 총예산 가운데 10% 아래로 주저앉고 말았다.

이러한 까닭은 중앙정부(국비)는 지방정부에(지방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서로 개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에서 기인하는 바 큰데 이것은 수산청이 계획한 어항시설 중장기투자 7차 5개년 계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90년까지 수산청 지정어항에 대한 총투자액은 4,074억2,900만원, 이 중 제1·3종 어항에 대한 투자액은 3,402억3,000만원이고 제2종 어항에 대한 투자액은 671억9,900만원이다.

그러나 제2종 어항의 경우 지방비 50%를 합친 금액이므로 실제로 국비에 의한 제2종 어항 개발·투자비는 336억 정도로 전체 투자액의 8%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표2 참조>

기타 '92~'96년까지의 7차 5개년계획과, '92~2001년까지의 계획도 표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희망적인 투자비는 계획되지 못하고 있다.

시·도별 제2종 어항에 대한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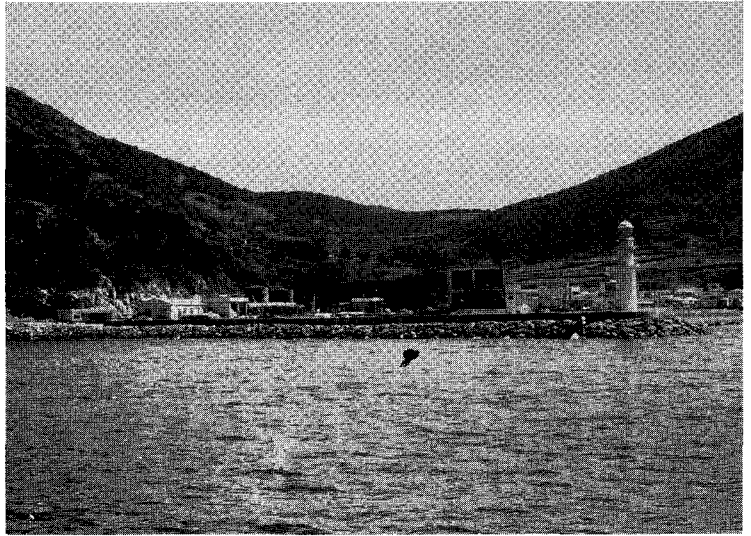
## 부산시

모두 7개 제2종 어항이 있으나 이 가운데 민락항은 선착장 매립으로 매립면허권자가 대체

어항을 시설중에 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어항은 우동항과 늘차항으로 나머지 4

개항(민락항 제외) 가운데 송정항과 대항항이 '92년 사업으로 개발중에 있다. <표3 참조>



<표 2> 어항 시설 중장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어항수	'90년 까지	'91	7차5개년 계획					'97~ 2001	
				계	'92	'93	'94	'95		'96
계	402개항	407,429	64,768	568,756	59,734	91,664	110,316	132,968	174,344	2,038,570
1·3종	83	340,230	52,966	463,374	47,932	74,670	89,924	108,228	142,620	1,849,335
2종	319	67,199	11,802	105,382	11,802	16,994	20,392	24,470	31,724	189,235

<표 3> 부산시 제2종 어항 개발현황

(금액: m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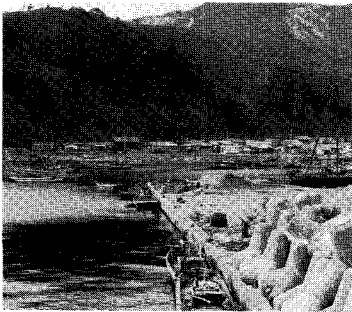
구분 항명	총 계획		기시설('91년까지)		'92 계획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7)	4,367	9,430	2,953	3,316	102	503	
송정	446	1,158	304	655	102	203	기존어항 선착장 112의 매립으로 면허권자가 대체어항시설중
청사포	493	1,127	303	527			
우동항	494	1,365	494	1,365			
민락항	422	1,811					
천성항	1,028	2,334	668	384			부산시 매립계획에 포함
대항	747	1,429	447	179	60	300	
늘차	737	206	737	206			

# 인천시

부산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7개의 제2종 어항이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개발률을 보이고 있다.

7개항 중 무의4항, 덕교항, 을왕항, 세어도항, 영종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으며 올해 광명항이 개발중에 있고, 대무의항은 '93년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

'92년분 어항개발이 끝나면 개발률은 무려 91.2%에 달할 전망이다. <표4 참조>



# 경기도

33개의 제2종 어항 가운데 만호항, 장덕항, 용두항, 마산포항, 선두항, 뱃말항, 선재항 등 7개항의 개발이 완료됐다.

올해 장곶항과 선진포항, 아진포항, 진리항, 풍도항이 개발중에 있으며 '92년 개발이 끝나면 전체 개발률은 약34%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항은 많으나 근본적으로 예산상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표5 참조>

<표 4> 인천시 제2종 어항개발 현황

(단위: m, 백만원)

구분 항명	총 계획		기시설('91까지)		'92 계획		'93 계획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7)	2,095.5	1,357	2,015.5	1,097	50	140		
광명항	301	466.3	251	306.3	50	140		
무의 4항	158	299.5	158	299.5	-	-		
대무의항	252	163.5	222	43.5	-	-	30	120
덕교항	344	111.6	344	111.6	-	-		
을왕항	569	220.1	569	220.1	-	-		
세어도항	166.5	3	166.5	3	-	-		
영종항	305	113	305	113	-	-		

<표 5> 경기도 제2종어항개발현황

(단위: m, 백만원)

구분 항명	총 계획		기시설('91년까지)		'92 계획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33)	9,044	24,113	5,818	7,305	145	894	
만호항	246	128	246	128	-	-	* 보수, 보강 미포함.
관덕항	280	119	160	83	-	-	
용두항	160	40	160	40	-	-	
마산포항	389	124	389	124	-	-	
선재항	120	143	64	31	-	-	
장곶항	180	2	180	2	-	-	
뱃말항	453	761	223	96	80	140	
진포항	420	571	390	451	-	-	
선진포항	245	330	176	176	-	-	
아진포항	326	241	326	241	-	-	
진리항	160	395	61	95	-	-	
풍도항	295	369	195	169	-	-	
진리항	231	401	132	83	-	-	
진리항	247	300	177	174	-	-	
진리항	208	303	108	3	-	-	
진리항	304	1,006	144	326	-	-	
진리항	216	1,041	166	541	-	-	
진리항	210	656	123	183	-	-	
진리항	587	2,974	337	774	16	400	
진리항	268	2,380	88	640	-	-	
진리항	298	1,495	118	255	-	-	
진리항	500	2,581	269	471	-	-	
진리항	335	1,647	135	347	-	-	
진리항	169	876	89	76	9	54	
진리항	261	609	208	344	-	-	
진리항	170	687	80	348	-	-	
진리항	230	670	87	115	23	140	
진리항	157	382	127	82	-	-	
진리항	68	18	68	18	-	-	
진리항	416	384	402	234	-	-	
진리항	82	245	82	245	-	-	
진리항	390	1,236	145	311	-	-	
진리항	423	999	163	99	17	160	

# 강원도

〈표 6〉 강원도 2종 어항 개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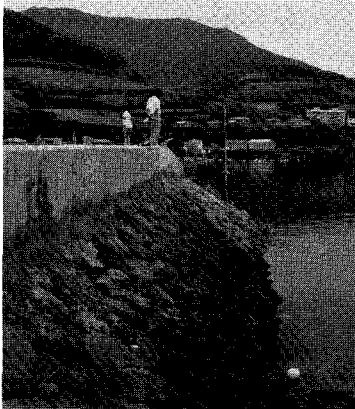
(단위: m, 백만원)

'91년말 개발률이 10.9%로 전북 다음으로 최하위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는 강원도는 모두 16개의 제2종 어항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2종 어항으로는 비교적 시설 규모가 큰 것이 개발의 속도가 더딘 한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 문암1리항만이 개발이 완료되었을 뿐이며, 모호항은 올해 공사가 끝나면 개발이 종료된다.〈표6 참조〉

구분	총 계획		기시설('91년까지)		'92 계획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16)	8,219	65,011	3,202	7,101	330	1,442		
가공현	진진호	550	2,589	284	1,139	50	122	
	호호호	540	5,613	233	113			
문암1리	문암1리	587	1,507	495	1,374	146	139	
	문암2리	281	1,914	281	1,914			
문암2리	문암2리	397	3,760	227	60			
	교천	390	6,547	45	7			
봉동	봉동	430	4,257	134	67			
	포천	719	2,320	259	533	31	337	
물동	물동	380	4,393	186	129			
	차산	1,008	11,476	258	176	42	150	
우진	우진	620	3,267	147	355	27	135	
	진진호	252	2,251	116	61			
중촌	중촌	520	6,995	99	35			
	곡남	600	4,289	99	241	9	222	
초신	초신	430	1,476	129	186			
	호산	515	2,357	210	711	25	337	



# 충청남도

모두 30개의 제2종 어항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은 91년말 개발률은 24.6%이다.

충남지역의 제2종 어항개발의 특징은 개발완료항이 30개항 중 15개항이나 되면서도 개발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그 까닭은 나머지 15개항 가운데 새로 개발이 시작되는 어항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표7 참조〉

〈표 7〉 충남 제2종 어항개발현황

(단위:m, 백만원)

구분	총 계획		기시설('91년까지)		'92 계획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30)	14,264	28,525	7,991	7,012	430	1,740		
효자도	효자도	86	53	86	53			
	도도도	177	317	177	317			
원삼도	원삼도	210	53	210	53			
	산길	167	2	167	2			
삼동	삼동	325	33	325	33			
	의의	322	231	322	231			
가장부	가장부	310	52	310	52			
	고항수	179	47	179	47			
내한	내한	320	115	320	115			
	만리	250	75	250	75			
난지	난지	340	240	340	240			
	도교	286	220	286	220			
판교	판교	139	44	139	44			
	대창	325	727	325	727			
송월	송월	771	1,700	771	1,770			
	장성	211	54	181	4			
창호	창호	100	70					
	성도	1,695	1,945	1,165	654			
삽시	삽시	445	1,499	277	888			
	도도도	410	5,871			85	500	
사점	사점	1,150	2,850	150	150			
	백분	880	1,115	404	431	242	400	
의채	의채	650	753	50	3			
	여교	1,216	3,344	301	49			
성구	성구	286	697	136	22			
	미	786	2,961	375	535	67	440	
성구	성구	1,025	1,357	225	297			
	성구	316	737	83	7			
성구	성구	359	259	259	59			
	성구	528	1,104	178	4			

〈표 8〉 전북 제2종어항 개발현황

(단위: m, 백만원)

구분 항명	총 계획		기시설('91년까지)		'92 계획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13)	12,728	90,751	3,618	2,729	130	600		
개발대상 (5)	소계	5,839	30,973	2,230	1,701	87	550	
	비안도	1,166	2,526	779	754	37	200	기존계획조정
	구시포	3,180	9,002	918	790	50	200	
	곰소	179	586	179	86	준설	150	
	상왕등도	930	18,518	70	30	-	-	
동호	384	341	284	11	-	-		
개발유보 (8)	소계	6,889	59,778	1,388 (1,518)	1,028 (835)	43	50	
	개야도	3,770	43,047	(618)	(627)	-	-	군장지구내
	비용도	367	1,776	105	212	-	-	"
	하계	688	780	618	500	-	-	새만금지구내
	심포	272	115	229	65	43	50	"
	계화	102	80	102	80	-	-	"
	하리	60	27	60	27	-	-	"
	돈지선유도	320	435	274	144	-	-	"

( )는 기존시설량

〈표 9〉 전남 제2종어항 개발현황

(단위: m, 백만원)

구분 항명	총 계획		기시설('91년까지)		'92 계획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102)	44,809	119,515	19,263	16,627	613	3,100	

〈표 10〉 경남 제2종 어항개발현황

(단위: m, 백만원)

구분 항명	총 계획		기시설('91년까지)		'92 계획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78)	37,143	121,633	24,792	18,590	424	2,242	

## 전라북도

개발대상 어항이 5개항에 불과하나 91년말 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개발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전북은 한·중수교를 맞아 가장 활발한 어항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지역임에도 이렇게 저조한 개발률을 보이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다만 군장지구라든지, 새만금지구 등 서해안 간척대상지구 등이 있어 투자가 제한된 곳이 많은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표8 참조〉

## 전라남도

제2종 어항이 106개로 전국의 약3분의 1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투자에 비해 개발의 속도가 매우 늦은 편이다.

특히 섬지역이 많아 개발의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92년 투자예산 역시 31억원으로 시·도 가운데 제일 높으며, 올해말 약 16.5%로 개발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표9 참조〉

## 경상남도

전남지역 다음으로 많은 78개의 제2종 어항을 갖고 있는 경남은 15.3%의 개발률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게다가 미개발 어항이 대부분이어서 단위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22억4,000만원을 투자해 개발률을 17.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표10 참조〉

## 경상북도

24개 제2종 어항에 14.3%의 비교적 저조한 개발률을 보이고 있는 경북지역은 통구미항이 유일하게 개발이 완료되었을 뿐 나머지 항은 현재 개발중이다.

특히 한곳에 집중투자를 하지 못하고 거의 산술적으로 평균하여 분산투자, 개발을 하다 보니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개발률도 기대한만큼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 <표11 참조>

## 제주도

9개의 제2종 어항을 갖고 있는 제주에는 예초항이 개발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어항도 개발이 활발한 편이다.

따라서 '91년말 개발률은 26.3%이며 '92년이 종료되면 39.4%나 높아진다.

차귀항의 개발이 새로 시작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개발률이 떨어지긴 하나 물량위주에서 질위주로 시공방법을 전환하는 등 다른 시·도와는 색다른 개발의욕을 보이고 있다. <표12 참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시·도에 산재해 있는 제2종 어항의 개발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쏟고 있으나 아직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곧 개발률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4

<표 11> 경북 제2종어항 개발현황

(단위: m, 백만원)

구분 항명	총 계획		기시설('91년까지)		'92 계획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24)	10,218	69,024	4,535	9,897	181	1,420	
나정항	400	971	215	371			
가곡항	310	975	163	250	10	60	
전촌항	450	1,830	122	430	15	100	
지경항	381	724	242	350			
망석항	478	744	301	231	20	60	
죽천항	440	1,620	178	594	15	60	
이거리항	416	1,538	292	697	13	100	
발산항	366	786	161	214	13	100	
모포항	575	1,692	249	206			
삼정항	324	606	200	188			
대보항	185	687	106	272	16	90	
부경항	394	451	291	301	13	100	
창포항	291	1,371	179	421	13	100	
노물항	210	684	93	104			
경정1항	298	1,498	129	218			
병곡항	486	1,563	253	273	13	100	
백석항	238	956	97	186			
골장항	515	2,607	239	197	10	100	
직산항	706	4,490	146	515	10	100	
기성항	732	4,536	168	556	10	100	
침부항	355	2,724	327	2,132	10	250	
남양항	790	16,600	106	588			
태하강	716	18,941	116	191			
통구미항	162	430	162	430			

<표 12> 제주 제2종 어항개발 현황

(단위: m, 백만원)

구분 항명	총 계획		기시설('91년까지)		'92 계획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9)	6,169	19,562	4,044	5,137	390	2,576	
조천항	865	3,851	450	296	보강1식	211	
새화항	1,305	2,301	965	1,420	50	445	
우도항	535	2,847	360	792	보강 및 암준설1식	638	
표선항	936	4,219	623	640	130	363	
대포항	303	540	273	320	30	110	
사계항	761	2,655	521	704	60	481	
가파항	1,024	1,498	689	789	120	184	
예초항	163	326	163	176	보강1식	144	
차귀항	277	1,325	-	-	-	-	